

特輯 I

火災豫防対策과 安全點檢

物質文明의 發達과 아울러 産業施設의 發展, 그에 따른 國民의 生活水準이 向上됨에 隨伴하여 建築物은 高層化되고 있고, 各種 火災發生을 要素로 하는 「에너지」의 需要樣相이 最高度로 科學化되고 있는 實情에서 火災를 豫防警戒하여야 할 消防問題 또한 專門性, 技術性 등 科學化가 要求되고 있다.

火災가 發生하면 鎮壓消防을 爲主로 하던 過去의 世代와는 그 火災의 樣相이 달라졌다. 換言하면, 一旦 發生한 火災의 燃燒速度가 緩慢한 過去와는 너무나도 相異하며 급기야는 大然閣「호텔」火災와 같은 大火를 誘發케 하는 실로 時代的消防對策의 改革이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時點에서 火災가 發生하면 그 被害輕減을 爲한 鎮壓手段 또한 重要하겠으나 火災發生의 舉皆가 人爲的인 過失로 發生하고 있으므로 火災發生後의 鎮壓보다는 發生以前에 어떻게 하면 火災를 未然에 防止할 수 있을까 하는 火災豫防對策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누구를 위한 安全點檢인가

國家의 火災豫防 對策을 中心으로



李 炳 出
서울特別市 消防本部 防護課長

1. 序 論

“火災를 豫防 警戒” 또는 鎮壓하여 國民의 生命, 身體 및 財産을 保護하므로서 公共의 安寧秩序維持 및 社會의 福利 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 消防法의 制定을 1958年度에 보았고, 時代的인 變遷으로 豫防消防의 問題點을 補充하기 爲한 法改正이 1973年 2月 8日에 이루어 졌음을 봐도 豫防消防의 重要性이 다시금 認識된다 할 것이다.

더우기 1972年 大然閣 火災, 大旺코너 火災 등에서 「가스」의 燃料化에 따른 取扱上의 不注意에 起因한 大火事例 등 또한 豫防消防對策의 問題點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問題點 解消를 위한 事前計劃의 樹立과 完璧한 施行이 곧 火災豫防對策의 實効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이 對策中의 施行上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이 安全點檢 即 防火診斷 일 것이다.

글자 그대로 火災發生 要因이 되는 不安全한 施設物 또는 要素 등을 事前에 摘發 是正 除去 措置하여 火災를 未然에 防止하는 安全點檢(防火診斷)이 正確히 遂行되어야 할 것이며 갖가지 豫防消防을 爲한 消防行事도 또한 並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生覺된다.

2. 本 論

이러한 火災豫防對策은 거떠한 計劃下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 方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要約해서 記述해 보기로 한다.

첫째, 火災豫防을 爲한 啓蒙宣傳이다.

消防當局에서 제 아무리 周到綿密한 計劃을 樹立하여 施行한다 하더라도 直接的으로 根源이 되는 불씨를 다루는 것은 一般國民이므로 一般國民이 어느程度의 火災豫防에 對한 認識이 잘 되어 있는가가 問題될 뿐 아니라 실사 認識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人間 그 自體가 내려오는 習性 내지는 複雜한 生活에 쫓긴 나머지 取扱上에 疎忽하여 지는 傾向이 있기 마련이다. 恒時 官의 周到綿密한 計劃이 施行 되면서 國民에 對한 불조심 啓蒙 등으로 刺戟을 주어 警覺心을 일깨울 것이 心要하다.

啓蒙宣傳의 方法을 列擧하여 본다면,

1. 各種報道機關 活用(新聞, 「라디오」, 「엠프」, 興行場幕間放送, 街頭放送).
2. 國民學校 어린이 消防隊員을 活用,
3. 民間 消防班員 活用,
4. 義勇消防隊 및 夜警員 活用,
5. 民間消防班, 國民班常會를 통한 座談會 實施 및 代表者會議 등을 통한 啓蒙.

6. 各種講報板 揭示를 통한 街頭宣傳.
 7. 消防檢査 및 戶口調査時 家庭, 職場訪問 啓蒙.
 8. 불조심의 날 活用(10月~翌年5月 每月 15日).
 9. 季節 및 氣象條件에 따른 特別啓蒙宣傳實施.
 - 가. 火氣取扱率이 많은 各節期.
 - 나. 換節期에 處하여 放心하기 쉬운 春·秋期.
 - 다. 氣象條件에 依한 乾燥 또는 強風등으로 火災警報 發令時.
 - 라. 火災警戒地區, 市場. 板子집密集地帶 등 地域別로 火災原因分析에 依한 警戒를 要하는 境遇 등이다.
- 물째, 防火診斷(安全點檢)을 徹底히 하여야 할 것이다.

各種 消防對象物의 防火診斷을 綿密히 技術의 으로 實施하여 火災要因이 되는 不安全한 施設 및 器具 등과 取扱上의 不注意 등 改善是正措置와 아울러 有事時 消防作戰의 技術을 有効適切히 活用할 수 있도록 消防上 必要한 資料를 蒐集하여야 할 것이다.

防火診斷을 實施하여야 할 具體的 事例들을 列擧해 본다면,

1. 電氣設備의 安全與否.
 - 가. 不法架設 電氣施設物의 有無.
 - 나. 電線의 老朽個所 有無.
 - 다. 容量에 適合한 휴즈 使用與否.
 - 라. 鉛製휴즈 以外 銅線 및 鐵線 使用 與否.
 - 마. 看板, 지봉 및 他 電線과의 接線與否.
 - 바. 配電合板, 變壓器, 點滅器施設 完備與否.
 - 사. 各種電熱用 器具 濫用 및 使用後의 放置 與否.
2. 危險物 取扱 및 貯藏의 安全與否.
 - 가. 不法貯藏 및 取扱與否.
 - 나. 運搬貯藏 및 暗賣 등 不法行爲與否.
 - 다. 各種 化工藥品 混合貯藏與否.
 - 라. 油類, 化工藥品, 爆發物 등의 製造 加工 및 取扱與否.

- 가. 火災警戒地區, 市場內의 油類 其他 化工 藥品 不法 搬入 및 燈火 安全與否.
3. 火氣使用 設備의 安全與否.
 - 가. 溫突을 新設하여 火力으로 乾燥시킬 때의 放置, 放心與否.
 - 나. 市場 및 狹少한 店舖內의 溫突 裝置與否.
 - 다. 마루밑의 쥐구멍 등으로 煙氣가 새는 곳의 有無.
 - 라. 火氣取扱 設備 附近의 可燃物 放置與否.
 - 마. 煙筒設置의 基準 適合與否.
 - 바. 破損 및 傳導 憂慮與否.
 - 사. 各種 可燃物質 및 電線 接觸與否.
4. 其他 着眼事項.
 - 가. 어린이에게 불을 매게 하는 일.
 - 나. 불을 매다 자리를 비우는 일.
 - 다. 부엌 및 火氣取扱 場所 附近의 引火性 物質 放置與否.
 - 라. 火力이 강한 危險物體를 매는 일.
 - 마. 安全 춥대의 使用與否.
 - 바. 油類用 暖爐 送油裝置使用의 適正與否.
 - 사. 재처리 狀況 및 不燃材料의 갯간 設置與否.
 - 아. 불을 끌 때의 完全消火與否.
 - 자. 불이 있는 재를 處理場 以外에 버리는 일.
 - 차. 可燃性 材料로 된 쓰레기桶 使用與否.
 - 카. 年少者에게 버리게 하는 일.
 - 타. 各種 燃燒器具 設備에 재를 끼지 않고 放置하는 일.
 - 파. 성냥 및 其他器具의 放置로 어린이가 불 장난을 誘導케 하는 일.
 - 하. 隣家 및 林野附近에서 焚火하는 일.
 - 거. 工事場, 事業場 등에서 焚火 하는 일.
 - 네. 油類 및 引火性 物質을 露上, 下水口 등에 버리는 일.
 - 더. 林野 등에서 炊事 등 불을 取扱하는 일.
 - 러. 製材所, 木工所, 家具店 등에서 引火物 質 取扱 및 取扱場 附離與否.
 - 세째, 豫火巡察의 施行이다.

火災未然 防止를 爲한 各種 防火診斷을 綿密히 行하였다 하더라도 人爲的인 取扱 不注意에서 오는 火災發生要素 乃至는 機械的 不安全要素 등을 防火巡察을 通하여 摘發, 是正措置하므로써 火災豫防에 實効를 擧揚할 수 있을 것이다.

이 防火巡察은 火災閑散期인 夏節期에는 人力消耗를 止揚하고 季節的 또는 氣象條件 등을 考慮 施行하여야 할 것이다.

1. 季節的으로 火氣取扱率이 많은 冬節과 春節.
2. 異常乾燥 注意報나 警報發令時 등 氣象條件에 依하여 地域的 實情에 適應한 計劃을 樹立, 機動 또는 徒步로 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3. 火氣取扱率이 많으므로 火災發生 頻繁期인 冬節에는 火災警戒地區 및 木造市場 등 火災發生 危險地區에 對하여는 氣象條件 등을 考慮, 消防官을 固定配置하여 自體 巡察強化를 督勵하고 合同巡察 등을 實施하여 不安全要素의 除去 是正 등으로 所期의 成果를 擧揚토록 할 것이다.
4. 官內 洞·班長과 緊密한 協調下에 夜警員을 把握하여 防犯巡警과 兼하여 防火巡察을 實施토록 하는 方法도 있을 것이다.
5. 里, 洞의 民間消火協調班員의 指導育成으로 火災豫防에 注力토록 하는 方法도 있을 것이다.

넷째, 消防訓練도 豫防對策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一旦 發生한 火災의 迅速한 鎮火를 爲한 手段과 技術의 研磨를 爲한 것만을 目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消防訓練을 實施하므로써 불조심에 對한 警覺心의 鼓吹는 勿論, 國民 스스로의 消防의 認識度가 漸次 높아 지므로써 自體火災豫防에 커다란 成果를 擧揚할 수 있다고 본다. 卽,

1. 消防官署에서의 示範訓練과 防禦訓練을 통한 啓蒙.
2. 特殊 消防對象物의 消防訓練指導 및 消防官署와의 合同訓練을 통한 指導 啓蒙 등 또한 火

災豫防對策의 一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山火豫防對策을 빠뜨릴 수 없다. 山林綠化事業을 벌이고 있는 現實에 照鑑, 山火를 未然에 防止한다는 것이 얼마나 重要한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山火警防對策으로 여러가지 方法이 있을 것으로 思料되나 그 中에서도

첫째로, 人爲的인 火災發生을 未然에 防止하기 爲한 入山者들에 對한 불조심 啓蒙宣傳 및 警告板 揭示와

둘째로, 山林火災 未然防止를 爲한 巡察 및 團束을 함에 있어서

1. 開墾 및 火田民의 入山 및 火氣取扱의 團束과
2. 登山, 逍風客들의 火氣휴대, 喫煙 또는 火氣取扱의 團束
3. 盜伐, 숫가마 등의 團束
4. 어린이 불장난을 團束할 것이며 아울러 有事時 延燒擴大 防止를 爲한 防禦線의 構築과 義勇消防隊員, 民間人, 山林係員 등으로 消防隊를 編成할 것 등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3. 結 論

前述한 바와 같이 火災發生의 樣相이, 高度로 發達된 經濟發展에 따라 純木造 建築時代에서 耐火建築時代에 이르러 物質文明 科學化的 「에너지」 生産材인 燃料의 多變성과 그의 副産物인 可燃物 등에 依한 火災는 그 燃燒의 迅速성에 依한 人命과 財産上의 被害는 實로 可恐할만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消防對策이 다시금 檢討된 바 있으며, 火災發生後의 鎮壓보다는 어떻게 하면 火災를 未然에 防止할 것이냐 하는 問題로 法的 規制까지 論議된 바 있어 結局 法的 改正까지 보기에 이르렀다.

例를 든다면, 火災가 發生하면 人命 및 財産上의 被害가 莫甚할 것이 豫想되는 高層建物, 學校, 共同住宅, 工場, 市場, 百貨店 등 特殊場所

에서 使用하는 「카텐」內裝物, 展示用合板 등을 防火性能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므로써 火災를 未然에 防止하고 存留時 燃燒速度의 緩慢을 卽히 被害를 輕減시키고저 하는 것으로 生覺되며, 또한 壓縮「아세틸렌·가스」, 液化石油「가스」 등의 貯藏 또는 取扱者를 事前에 消防當局

에 申告토록 하여 豫防消防을 위한 點 등(아직 施行令 未公布로 施行不能이지만)은 豫防消防의 劃期的인 施策이라 할 수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은 各種 豫防消防對策의 綿密한 計劃과 徹底한 施行만이 火災를 未然에 防止할 것으로 生覺하는 바이다.

隨想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너무나 모호하고 어쩌면 의미없는것일까?

그러나 나에게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그 무언가를 기다리는 습성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의식적으로 유발되는 현상은 아니다. 다만 그 냥, 그야말로 허탈한 상태 하에서 무심코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회람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가 지옥에서 커다란 바위를 산봉우리 까지 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이 맹목적인 것은 아니다. 시베리아 유형죄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 댓가도 보람도 없이 벽돌을 나르는 일이다. 어제의 날과 오늘의 날, 또 미래의 날이 되풀이 되는 나날의 반복, 그러나 기다리는 마음 에도 한계는 있다. 시간은 정처없이 흘러간

다. 그러나 방향감각은 전혀 잃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방향감각을 잃어가는 못 인간들에게 무한한 암시를 해주고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人間들에게 서광을 준다.

또한 의욕을 상실한人間들에게 그러한 상태에서 부터 초탈시켜 무엇을 하고저 하는 의미를 제공해 준다.

허무주의는 人生의 포기상태인 것이다.

위에서 기다리는 마음은 희망을 안겨다 준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理想도 꿈일 뿐이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알에서도 아름다운 비둘기 대신 징그러운 뱀이 나올지도 모른다.

지나친 이상주의는 실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가끔 「환영」이나 「환상」등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 들은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던 나머지人間들에게서 생겨나는 일종의 이상현상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마음은 인간의 두뇌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주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저질은 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眞, 善, 美의 生活을 다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희망을 함께 겸비하고 있다고 본다.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즉, 生活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人間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받아 들이는 범위 내에서 생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다리는 것도 이 범위內에서. 기다려야 할것이다. 맹목적 인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지침이 될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사고력을 기르는 한 과정이라고도 생각된다

무릇 인간들은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보야 할것이다. 이 또한 자기 자신의 행복의 지침이 될수 있는 것이니까……<趙滄珠>